

전자책 장서 구성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요구*

- 부산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전자책 분석을 중심으로 -

The Awareness and Demand of Teacher-Librarian for the Composition of E-book Collec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E-books Provided by Busan Digital Library System

장 효 정 (Hyo-Jeong Jang)**

정 진 경 (Jin-Gyeong Jeong)***

이 용 재 (Yong-Jae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사례분석 |
| 2. 선행연구 | 5. 연구결과 |
| 3. 연구 방법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 구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자원으로서 학교도서관 전자책 구축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방안을 사서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이슈와 인식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플랫폼으로서 부산 종합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책 3,002종의 장서 구성을 한국십진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초등 사서교사 4명과 중등 사서교사 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전자책 장서구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book composition provided by the Comprehensive Reading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to propose a servic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e-books in school libraries as educational resources based on practical issues and perceptions experienced by teacher-librarians. As a research method, the composition of the collection of 3,002 e-books supported by the Busan Comprehensive Reading Education Support System as a reading education platform of the school library was analyzed based o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two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4 elementary teacher-librarians and 5 secondary teacher-librarians working in Busa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upport students' reading activities using e-books as educational resources and to form an efficient e-book collection in school library.

키워드: 학교도서관, 전자책, 독서교육, 교육자원, 독서교육종합시스템

School library, E-book, Reading Education, Educational Resources,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Reading Education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박사과정(pollus3@naver.com / ISNI 0000 0005 0724 3096)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jjk9456@naver.com)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 ISNI 0000 0004 6472 844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399-430,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399>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방향 전자책 이용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meets & Bus, 2013). 종이책 위주의 독서 생태계가 이제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변화된 독서 환경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서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은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화면으로 읽는 책'을 의미하며, 독서는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웹소설 및 장르소설을 포함한 일반도서 읽기와 오디오북 듣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대비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가 10%포인트 전후로 큰 반면 20~30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의 매체별 연간 독서율은 '종이책' 87.4%, '전자책' 49.1%, '오디오북' 1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대비 초·중·고 학생의 종이책을 활용한 독서율은 3.3%포인트 감소한 반면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율은 11.9%포인트 증가하였다. 모든 학교급에서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자책 연간 독서율은 초등학생이 전년 대비 8.1%포인트, 고등학생이 7.6%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무려 전년 대비 20.3%포인트 증가한 47.4%로 나타나고 있다(국민독서실태조사, 2021).

이와 같이 전자책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서 전자책 제공에 대한 사서교사의 역할과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빈틈없는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국내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방식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청에 따라 제공방식이 매우 상이하며 학교도서관에서 그 활용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의 종이책 형태로 대표되었던 장서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전자책을 아우르게 되었지만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종이책이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에 의해 구성되어 온 반면 전자책의 경우에는 장서개발정책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종이책이나 전자자원 관련 정책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장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송이, 2012, 2) 이는 학교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를 지원하고 교육자원으로서 활용이 적합하도록 전자책을 구성하여 학생과 교사의 요구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플랫폼으로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이 중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책 3,002종의 장서 구성을 한국십진분류표(이하 KDC)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 사서교사 4명과 중등 사서교사 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 구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자

원으로서 학교도서관 전자책 구축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사서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이슈와 인식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장서 구성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 장서 구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전자책이 학습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토대로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자책 장서의 구성이 서비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에 대한 차이점에 관한 연구로 Jongyun Lim, Whitehead, Yundeok Choi(2021)는 대화형 전자책 읽기와 종이 읽기가 중학생의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연구에서 두 가지 다른 읽기 매체인 대화형 전자책 읽기와 종이 기반 읽기가 학습자의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독해 테스트 점수 결과는 5가지 테스트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자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에 대한 분석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희동(2011)은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험 활동이 유아들의 이야기 이해도와 창의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후비교 분석 결과 전자책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와 종이책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책과 종이책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험 자체만으로도 유아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이야기 이해도 및 창의성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동화를 들려줄 때 종이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책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로 윤택남(2022)은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을 운영하는 서부 텍사스 지역 FSD학군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은 초등학교생들의 언어발달은 물론 정서함양, 문해력 확장, 창의력 증진, 어휘력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수업 몰입도와 참여도 향상, 학습자들의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과 흥미 및 동기 상승이라는 교육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선결과제로 온라인 도서관 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수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전자책 이용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Biancarosa와 Griffiths(2012)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 어떻게 문해 교육에 대한 가능성과 도전을 제공하

는지 연구하였다. e-reading 기술이 기존의 문맹 퇴치 문제와 새로운 문맹 퇴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나 e-reading 기술 도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들이 풍부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리자, 교육자 등이 사용을 지도해야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미나(2012)는 학습 메커니즘의 융합으로서 전자책과 디지털 교과서가 새로운 학습 도구 또는 학습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융합 콘텐츠로서 디지털 교과서를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제에 대해 심층적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책 장서의 구성이 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Dawkins와 Gavigan(2019)는 고등학교 도서관의 전자책 장서 구성이 순환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K-12 학교에서 전자책의 유통과 사용에 관한 실증연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K-12 학교에서 전자책이 어린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과 전자책 사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미국 남동부에 있는 8개 고등학교의 순환 통계를 분석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인터뷰하여 전자책 컬렉션의 사용 패턴과 전자책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및 전자책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학교에서 향후 전자책 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사서들의 전자책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는데 연구 결과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에 대한 강조

의 증가로 K-12 학교의 전자책 유통 및 사용 패턴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정보 제공 및 오락용 도서가 전자책으로 제공됨에 따라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이 디지털 형식에 반응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교도서관과 교실에서 전자책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적합한 장서 개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 강희영(2021)은 학교도서관의 전자책 활성화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및 사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전담인력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서교사는 전자책 이용에 대해 인식이 높았으며 실제로 전자책 관련 기능 습득이나 문제 해결, 전자책 관련 용어 이해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전자책 서비스가 학교도서관에서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사서교사는 기술과 시설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독수업을 비롯해 수업 활동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현재 학교도서관이 디지털자원을 활용하는 추세에서 사서교사들이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전자책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전자책 장서 구성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험 자체만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독서활동에 있어서도 전자책 활용은 문장에 대한 이해도와 창의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책이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로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장서 구성과 이용 효용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자책 장서구성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사서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에 대하여 사서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학교도서관이 구축해야 할 전자책에 대한 서비스 수요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위하여 17개 시·도의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의 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002종 전자책의 장서 구성을 한국십진분류표(KDC)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기존의 부산시 교육청이 제공한 3,002종에 대한 카테고리는 서점식 분류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요목 수준의 주제분석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KDC를 참조하여 재분류하였다.

앞선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지를 작성하였으며 FGI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 내 초·중·고등학교에 본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9명의 사서교사를 선정하였으며 FGI 진행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FGI 진행 내용

	구분	내용
1차	일시	2022년 6월 10일
	진행방법	온라인 ZOOM을 통한 FGI
	진행 시간	2시간 30분
	참여자	초등학교 사서교사 4명
2차	일시	2022년 9월 27일
	진행방법	온라인 ZOOM을 통한 FGI
	진행 시간	2시간 15분
	참여자	중학교 사서교사 3명, 고등학교 사서교사 2명

2022년 6월 10일에 1차, 2022년 9월 27일에 총 2차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다. 학교 급간별 사서교사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차는 초등학교 사서교사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차는 중학교 사서교사 3명, 고등학교 사서교사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2차 모두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150분과 135분간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사서교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FGI에 참여한 9명의 사서교사 중 3명은 사서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9명 모두 사서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업무경력은 사서와 사서교사 경력을 각각 조사하였으며 참여자 총 9명의 사서교사 중 5명은 업무경력 10년 이상이고, 9년 1명, 8년 9개월 1명, 그리고 2명은 5년 이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FGI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질문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설계하였다.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면담 질문에 더하여 면담 기관의

전자도서관 운영 및 수업시간 전자책 활용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ZOOM을 통해 녹화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이를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면담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핵심 견해를 파악하였다. 해당 FGI는 총 2차에 의해 진행되었고 1차는 초등학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2차는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전사본을 비교하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사서교사가 가지는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담 간에 나타난 유사한 견해들을 모아 범주화하고 의견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면담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세분화 과정을 거쳐 결과 분석표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결과 분석표를 가지고 두 인터뷰의 전사본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과 분석표를 확정지었다.

<표 2> FGI 참여자 정보

	참여자	소속	직책	업무경력		성별
				사서	사서교사	
1차	P1	A초등학교	사서교사	7년 6개월	1년 3개월	여
	P2	B초등학교	사서교사	4년 6개월	6년 4개월	여
	P3	C초등학교	사서교사	.	9년	여
	P4	D초등학교	사서교사	.	4년 11개월	여
2차	P5	E고등학교	사서교사	.	14년 6개월	여
	P6	F중학교	사서교사	.	2년 6개월	여
	P7	G중학교	사서교사	.	12년	여
	P8	H중학교	사서교사	.	14년 7개월	여
	P9	I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6년 11개월	3년 6개월	여

〈표 3〉 FGI 면담 설계

	질문(QUESTIONS)	조사(PROBES)
1	KDC 강목별로 학생과 교사들은 어떠한 정보행태 추구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전자책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KDC 강목별 사서교사의 전자책 수요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2	소장도서와 전자책 장서 구성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도서와 전자책 장서 구성의 관계
3	과제에 필요한 교육자원으로 전자책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 여부
4	현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의 문제점 전반
5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 중 전자책 서비스의 책임 기관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학교에서 전자책의 서비스 책임 기관
6	장르문학의 전자책 수용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르문학의 전자책 수용 여부

4. 사례분석

4.1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의 전자도서관 운영현황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란 정보매체에 익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컴퓨터상에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퓨터 기반 독서활동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접근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각 지역 교육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전자책 서비스 현황을 보충하여 파악하였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은 크게 2가지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북드림전자도서관’과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자

체적으로 제공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개의 시·도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모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북드림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계정 정보로 로그인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안에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제주, 충북으로 총 8곳이었다. 다만, 부산 지역의 경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계정으로 시민도서관의 전자도서관과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었으며 대구, 인천, 광주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 및 대표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배너가 있었지만, 계정 정보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 인터뷰 결과 이는 단순히 이용자에게 홍보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7개의 시·도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8곳의 지역을 바탕으로 전자책 종수, 보유 형태를 분석하였다.

〈표 4〉는 2022년 10월 기준 지역별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종수 및 보유 형태이다. 전자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69,000종)이며,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1,432종)이다.

보유 형태의 경우 크게 ‘소장형’, ‘구독형’ 그리고 소장형과 구독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소장/구독형’으로 나누었다. 소장형은 해당 도서관에서 양질의 전자책을 선별·구입 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구소장이 가능하고, 한 번 구입하면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장형 서비스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출판사들이 있어 최신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데 제약이 있다. 반면, 구독형은 유통사와 계약해 제공하는 임대형 서비스로 소장형 서비스에는 판매하지 않는 출판사가 참여하여 전자책의 종수가 더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하지만 구독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함에 따라 도서관에 남는 장서는 없으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 구독형, 소장형 서비스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기관의 예산, 장서 구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신정아, 2021, 103).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은 8곳 중 7곳(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서울, 제주, 충북)에서 소장형 전자책을 서비스하며, 나머지 1곳(광주)의 경우 교보문고를 통해 구독형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소장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2,606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광주의 경우 소장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69,000종의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자책 활용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 양상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부가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 활용에는 적극적이지만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자책 서비스는 크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북드림 전자도서관’과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드림 전자도서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이용하고 있었으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안에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경기도,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제

〈표 4〉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종수 및 보유 형태 (단위: 종)

지역	경기	경남	광주	대전
종수	4,969	1,837	69,000	1,742
보유 형태	소장형	소장형	구독형	소장형
지역	부산	서울	제주	충북
종수	3,002	3,231	2,031	1,432
보유 형태	소장형	소장형	소장형	소장형

주, 총복 8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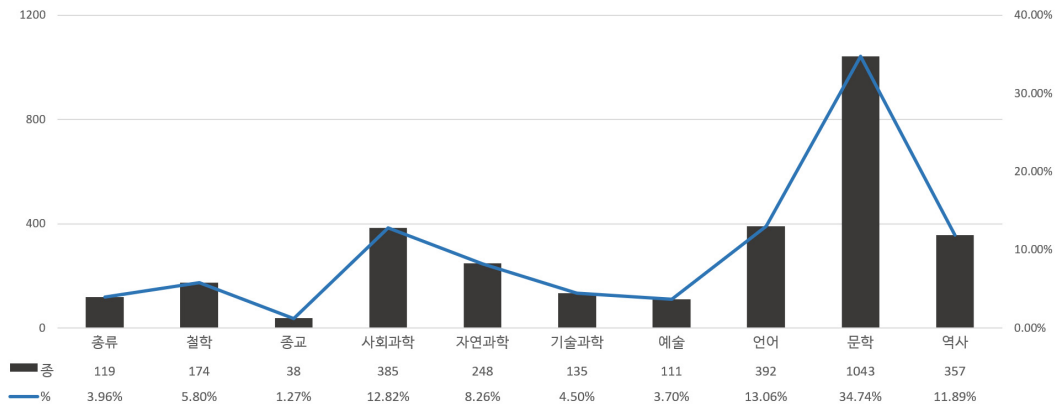
둘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은 대부분 '소장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606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8곳 중 광주를 제외한 7곳(87.5%)에서 소장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만 구독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소장형 서비스의 경우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606종을 보유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전자책을 구입하지 않고 대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장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부산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 주제분석

2022년 10월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자책

구독 경로는 총 3가지이다. 첫째, 한국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의 소장형 3,002종, 둘째, 부산 시민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소장형과 구독형 1,084종, 마지막으로 전체 구독형으로 제공되는 북드림 전자도서관¹⁾ 60,397종이다. 이 중 본 연구는 부산 한국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소장형 전자책 3,002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시 교육청이 제공한 3,002종에 대한 카테고리는 서점식 분류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목 수준의 주제분석을 위하여 개별 3,002종에 대한 단행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KDC와 매핑(mapp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은 부산 한국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의 주류(Main class) 현황으로 문학이 3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언어(13.06%), 사회과학(12.82%), 역사(11.8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분야의 전자책은 전체 1.27%로 가장 낮은



<그림 1> 부산 한국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의 주류 현황

1) 교육부와 교보문고, 롯데 장학기관에서 일정 기간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과 교사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관, 교육부 공식블로그(20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산 한국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주류별 강목(Division)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류의 경우 <표 5>와 같이 「문헌정보학(35.29%) > 백과사전(26.89%) > 총류(24.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연속간행물, 향토자료는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철학류는 「윤리학·도덕철학(50.57%) > 심리학(31.61%)」 순으로 전체 철학류의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형이상학이나 논리학과 관련한 전자책은 3,002종 중 각각 단 1건에 그쳤다.

사회과학류의 경우 <표 6>과 같이 「교육학(33.77%) > 경제학(28.05%) 순으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학·사회문제(14.03%) > 풍습·예절·민속학(12.2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이나 행정학과 관련한 전자책은 3,002종 중 각각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자연과학류는 「자연과학(34.27%) > 수학(18.15%) >

<표 5> 총류(000)·철학(100) 강목 분포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KDC	강목	건수	비율
000	총류	29	24.37%	100	철학	15	8.62%
010	도서학, 서지학	1	0.84%	110	형이상학	1	0.57%
020	문헌정보학	42	35.29%	120	인식론	1	0.57%
030	백과사전	32	26.89%	130	철학의 세계	0	0.00%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3	2.52%	140	경학	2	1.15%
050	일반 연속간행물	0	0.00%	150	동양철학	7	4.02%
060	일반학회	8	6.72%	160	서양철학	4	2.30%
070	신문, 언론, 저널리뷰	3	2.52%	170	논리학	1	0.57%
080	일반전집, 총서	1	0.84%	180	심리학	55	31.61%
090	향토자료	0	0.00%	190	윤리학, 도덕철학	88	50.57%
	총	119	100%		총	174	100%

<표 6> 사회과학(300)·자연과학(400) 강목 분포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KDC	강목	건수	비율
300	사회과학	12	3.12%	400	자연과학	85	34.27%
310	통계학	1	0.26%	410	수학	45	18.15%
320	경제학	108	28.05%	420	물리학	13	5.24%
330	사회학, 사회문제	54	14.03%	430	화학	5	2.02%
340	정치학	22	5.71%	440	천문학	12	4.84%
350	행정학	1	0.26%	450	지구과학	13	5.24%
360	법률, 법학	8	2.08%	460	광물학	0	0.00%
370	교육학	130	33.77%	470	생명과학	32	12.90%
380	풍습, 예절, 민속학	47	12.21%	480	식물학	10	4.03%
390	국방, 군사학	2	0.52%	490	동물학	33	13.31%
	총	385	100%		총	248	100%

동물학(13.31%) > 생명과학(12.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과학에 속하는 기초 학문 분야인 「물리학(5.24%) 화학(2.02%), 천문학(4.84%), 지구과학(5.24%)」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술과학류의 경우 <표 7>과 같이 「의학(30.37%) > 공학(26.67%) > 생활과학(19.26%)」 순으로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축, 화학공학과 관련한 전자책은 3,002종 중 각각 단

3건에 그쳤다. 또한 예술류는 「회화, 도화, 디자인(29.73%) > 예술(21.62%) > 음악(18.02%) > 오락, 스포츠(1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예(0.90%), 서예(0.00%)」와 관련된 전자책은 3,022종 중 단 1건 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어류의 경우 <표 8>과 같이 영어가 전체 85.97%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어(13.01%) > 중국어(0.77%) > 일본어 및 기타 아시아제어(0.26%)」 순으로 나

<표 7> 기술과학(500) · 예술(600) 강목 분포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KDC	강목	건수	비율
500	기술과학	6	4.44%	600	예술	24	21.62%
510	의학	41	30.37%	[610]	∅	7	6.31%
520	농업, 농학	10	7.41%	620	조각, 조형미술	0	0.00%
530	공학	36	26.67%	630	공예	1	0.90%
540	건축	3	2.22%	640	서예	0	0.00%
550	기계공학	6	4.44%	650	회화, 도화, 디자인	33	29.73%
560	전기공학	4	2.96%	660	사진예술	6	5.41%
570	화학공학	3	2.22%	670	음악	20	18.02%
580	제조업	0	0.00%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7	6.31%
590	생활과학	26	19.26%	690	오락, 스포츠	13	11.71%
	총	135	100%		총	111	100%

<표 8> 언어(700) · 문학(800) 강목 분포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KDC	강목	건수	비율
700	언어	0	0	800	문학	88	8.44%
710	한국어	51	13.01%	810	한국문학	667	63.95%
720	중국어	3	0.77%	820	중국문학	14	1.34%
730	일본어 및 기타아시아제어	1	0.26%	830	일본, 기타아시아	14	1.34%
740	영어	337	85.97%	840	영미문학	139	13.33%
750	독일어	0	0	850	독일문학	50	4.79%
760	프랑스어	0	0	860	프랑스문학	42	4.03%
770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0	0	870	스페인, 포르투갈문학	7	0.67%
780	이탈리아어	0	0	880	이탈리아문학	5	0.48%
790	기타제어	0	0	890	기타제문학	17	1.63%
	총	392	100%		총	1043	100%

타났으며 그 밖의 언어류들은 전자책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모든 강목 중 가장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문학류는 「한국문학(63.95%) > 영미문학(13.33%)」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류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기타제어와 관련한 전자책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나 문학류에서는 <표 8>과 같이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제문학」이 5% 미만의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 9>와 같이 한국문학의 경우 소설이 전체 77.9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자책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특히 '20세기 한국소설'과 '21세기 한국소설'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학류의 전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류의 경우 <표 10>과 같이 기독교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교종교(34.21%) > 불교(13.16%) > 종교(2.6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종교류들은 전자책으로 제공되지

<표 9> 한국문학 요목(Section)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10	한국문학	23	3.45%				
811	시	34	5.10%				
812	희곡	4	0.60%	813.5	조선시대 소설	41	7.88%
813	소설	520	77.96%	813.6	20세기 한국소설	228	43.84%
814	수필	20	3.00%	813.7	21세기 한국소설	220	42.30%
815	연설, 웅변	0	0.00%	813.8	동화	24	4.61%
816	일기, 서간, 기행	11	1.65%		기타	7	1.34%
817	풍자 및 유머	1	0.15%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54	8.10%				
	총	667	100%				

<표 10> 종교·역사 강목 분포 현황

KDC	강목	건수	비율	KDC	강목	건수	비율
200	종교	1	2.63%	900	역사	50	14.01%
210	비교종교	13	34.21%	910	아시아	145	40.62%
220	불교	5	13.16%	920	유럽	11	3.08%
230	기독교	19	50.00%	930	아프리카	2	0.56%
240	도교	0	0.00%	940	북아메리카	2	0.56%
250	천도교	0	0.00%	950	남아메리카	0	0.00%
260	∅			96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0	0.00%
270	힌두교, 브라만교	0	0.00%	[970]	∅		
280	이슬람교(회교)	0	0.00%	980	지리	49	13.73%
290	기타 제종교	0	0.00%	990	전기	98	27.45%
	총	38			총	357	

않고 있었다. 또한 역사류는 『아시아(40.62%) > 전기(27.45%) > 역사(14.01%) > 지리(13.73%)』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류에서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양극지방에 분류된 전자책은 제공되지 않고 있거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5. 연구결과

5.1 KDC 강목(Division)별 전자책 수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요구

5.1.1 총류

초등 사서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 수업에서 사전류에 대한 교사의 수요가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사회과’ 단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나 지역 출신의 위인들이 수업에서 활용되는데 이와 관련한 향토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속간행물도 인쇄 잡지의 형태보다 웹진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에서 사전에 관련한 단원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있는 실물 백과사전을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의 현실은 백과사전이 종이 형태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백과사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자책 형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P2)

“학교도서관은 국어사전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요. 국어사전이 전자책 형태로 구비되면 좋을 듯해요.” (P4)

“향토자료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위인이라든지 연계해서 향토자료가 필요하거든요.” (P3)

“잡지 이런 것도 최신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린이 신문이나 이런 것도 웹진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1)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 관련한 영역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신문과 관련된 단행본이 가짜 뉴스와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총류에서는 특별히 전자책으로 어떤 특정 부분의 수요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최근 시사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속간행물이 전자책 형태로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헌정보학 쪽에 진로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하여 좀 잘 봅니다.” (P10)

“백과사전류는 거의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신문 070 대 저쪽은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또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P7)

“고등학생들은 최근 시사 상식, 관련 분야의 연

구 동향이나 뉴스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 등에 대한 정보요구가 강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단행본보다는 연속간행물에서 보충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웹진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많으니깐 이런 것에 대한 제공도 필요해 보입니다.” (P5)

5.1.2 철학류

초등 사서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의 논리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교육 자료로 논리학과 관련한 서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MBTI와 같이 아이들은 최신의 심리학 관련 이슈들을 매체들을 통해 흥미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심리학 서적 중 이를 다룬 것들을 전자책으로 구비하여 제공한다면 단순 흥미를 넘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분야로 독서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료로 논리학과 관련한 서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P3)

“최근 애들이 MBTI와 같은 최신 심리학 관련 이슈에 빠져있어요. 그런 최신의 책들이 전자책으로 제공된다면 매체보다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아무래도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책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1)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담 심리,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진로 도서로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심

리학, 윤리학·도덕철학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여고의 경우 심리학에 이용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과목들을 접하는데 해당 과목에서 철학자들의 삶, 주요 사상에 대한 과제들이 있어서 동양철학·동양사상이나 서양철학과 관련한 책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도 철학의 일반적인 부분의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 책들은 잘 안 골라요. 그나마 이제 보는 건 심리학하고 윤리학, 도덕철학 이제 저쪽에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고이다 보니 심리학 쪽에 좀 더 몰려 있는 느낌은 있어요.” (P10)

“자기계발서가 거의 KDC 199번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서가 많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양철학·동양사상, 서양철학 부분에 동서양 철학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과제로 철학자들의 삶이라든지 주요한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쓰는 이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경우 관련 서적이 필요합니다. 상담 심리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이 또 자기 진로 도서로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쪽 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5)

5.1.3 종교류

초등학생의 경우 종교류로 분류된 책 중 사실 아이들은 종교에 대해 전반적 관심을 갖고 탐구

하기보다는 그리스로마신화와 관련한 책만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초등 사서교사들은 그리스로마신화와 관련한 책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육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동양신화, 서양신화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저서가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스로마신화가 KDC 219 비교 종교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교류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냥 그리스 로마신화 이것만 진짜 딱 찾더라고요.” (P3)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신화 형태의 스토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단행본 수서할 때 동양 신화도 구비해 놓으니 잘 읽더라고요. 물론 서양 신화도 있지만 동양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관련하여 신화와 관련한 책들을 전자책으로 구비하면 수업시간에도 교육자원으로 선생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4)

중·고등학생들 역시 종교류에서는 그리스로마신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고 그 외의 경전이나 성경은 잘 읽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비하고 있는 불교, 기독교와 관련된 책도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종교의 책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종교류 서적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여 관련한 서적 출판에 무관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최신 단행본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탐색

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가 4년 가까이 이제 3년 6개월 근무하면서 불교 경전을 빌려 가는 학생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로마신화도 은근히 볼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P10)

“실제로 아이들은 200번대에서 그리스로마신화만 보거든요. 전자책이 있더라도 경전이나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는 잘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P7)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종교의 일반적인 지식과 관련된 교양적인 부분조차도 보지를 않고 있지만 저는 교육자원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불교의 기본 경전 되게 유명한 금강경 경전이라든지 기독교의 성서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들은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전자책으로 텍스트를 쉽게 해설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용이 저조해서 지금 당장 구비할 것 같지는 않지만 무관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최신 단행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10)

5.1.4 사회과학류

초등 사서교사들은 최근 아이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자료로 저장되고 있고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나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서적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속담, 수수께끼와 관련된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에 해당 연계 단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반면 소장도서가 많지 않아 대출경쟁이 치열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속담이나 수수께끼와 관련한 전자책이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사회문제, 특히 젠더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어릴 때부터 사회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이를 수업시간에 토론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도서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연구학교라서 관련한 활동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빅데이터나 통계학과 관련한 전자책을 많이 구비하면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3)

“저희 아이들은 풍습 예절 민속학 그러니까 속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산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책들 중에는 이 부분의 비율이 생각보다 좀 더 낮더라고요. 수업시간에 관련 단원도 있고 수요도 많은 영역이라서 전자책으로 제공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듯해요.” (P4)

“요즘 사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젠더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특히 사회 문제 성역

할이나 젠더와 관련한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혐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학교도서관에서 적절한 책을 통해서 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책들이 있다면 토론 교재로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사서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고등학교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조금 많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러한 이슈들을 관련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4)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은 통계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은 장서들은 거의 대부분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학 영역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분류 번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앞선 초등 사서교사의 의견과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 영역의 도서 부분을 많이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성학, 노동, 사회복지, 사회 전반적인 갈등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 수업을 많이 진행하며, 교과 교사들도 이 부분의 책을 많이 찾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이러한 영역이 구축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 자료를 편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일부 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에서 실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학류 만큼이나 사회과학이 그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통계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모두 아이들의 진로와 연결

이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는 직업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 경찰 이런 식으로 행정학 관련해서 아이들은 지금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직업의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찾아 보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고루고루 책이 수서가 많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P5)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문학류보다 사회과학 분야가 반 이상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분야는 그래서 다다익선입니다. 심지어 대학 이론서 입문하는 이제 그런 류의 책들도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이론서들도 은근히 봅니다. 대학교 1학년들이 볼 만한 그런 책들도 갖춰지는 게 전자책으로 특히나 보면 그런 책들을 소장도서로 구비하기가 좀 더 쉽다. 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10)

5.1.5 자연과학류

초등 사서교사의 경우,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종류의 도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자료로 한 반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자책을 통해 구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백과사전, 도감과 같은 참고도서는 부피도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관외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런 참고도서들이 전자책으로 구축된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제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의 경우 교통, 천문학, 과학, 공룡과 관련한 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제들은 과학 단원에서 교사들이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이런 주제 유형의 과제를 할 때 추천할 만한 소장도서가 부족할 경우 최신의 전자책이 구비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도감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동물도감 식물도감 이게 종류가 그렇게 또 한 반에서 다 쓸 만큼 많지 않아서 그렇게 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전자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도감이나 식물도감이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도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P1)

“이쪽 교통, 천문학이나 지구 과학,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저학년 남학생들이요, 그러고 과학 관련 단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를 찾아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쪽에 숙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침식 작용, 지진이라든지 이런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숙제를 할 때 뭔가 찾아야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장서가 사실 학교에 없으면 전자책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4)

“백과사전도 그렇고 식물학 동물학 도감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참고도서라고 해서 참고도

서는 원래 관외 대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고가고 부피가 크고 훼손의 우려가 있고 해서요, 물론 최근에는 보급판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기에는 글씨가 작고 그림이 함께 작아져서 이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자도서로 구축이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P2)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 수학, 화학, 지구, 물리, 생명 등 교육과정과 연관성 높은 주제들이 많아 수요가 높은 편이며 수요에 있어 학생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주제영역으로 특정 이용자의 특정 수요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장서개발에서 많이 고민하는 분야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장도서가 포용할 수 없는 수요들을 전자책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 환경 과목에서 식물학, 동물학과 관련한 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들 주제의 책들은 최근 연구 동향 및 이슈 등을 포함한 최신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책이 잘 구비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학도 안 볼 것 같지만 마니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제 호불호 확 갈리는 워낙한 분야이고... 화학, 지구, 물리,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교과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책의 형태로 된 게 분명히 조금 내용이 어렵다 싶었는데 봐요, 심지어 저는 양자역학 책 골라서 보는 학생도 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래서 의외로 저 분야도 골고루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서개발할 때 학교의 소장도서로 만족하기에 아쉬움이 큼니다.” (P5)

“사실 저희 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 영역이 이용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은 떨어지는 대신에 수서할 때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분야예요, 특정한 아이들이 선생님 또 다른 책은 없나요 하고 찾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많은 주제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P7)

“과학, 환경 과목에서 식물학, 동물학 관련된 책들이 때때로 수업시간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 다. 이 항목에서는 최근 이슈나 동향 같은 최신성이 높은 전자책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6)

5.1.6 기술과학류

초등학생들은 요리, 건축, 인테리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이 높고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 로봇과 관련된 책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육용으로는 신체에 대한 자료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대체로 그림 자료들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책이나 전자 자료로 제공이 된다면 아이들의 관련 주제에 대한 몰입도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요즘 아이들이 요리, 건축,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최근 관심이 많죠, 이런 자료들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학생들의 몰입도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P1)

“남학생들은 로봇 조립이나 로봇을 설명하는 책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육용으로는 어쨌든

신체나 우리 몸에 관련한 것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다 마음은 한 번쯤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앞선 선생님들 말씀처럼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P4)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요리와 같은 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이용률이 있는 편이며 최근 생태계와 환경에 관련한 이슈의 증가로 분류(590)의 생활과학과 관련한 주제로 수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남고의 경우 기술과학 분야는 환경공학, 도시 설계, 의공학 등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분류 영역으로 최신의 다양한 자료들에 많은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기술과학 주제들 중에는 사실 애들이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요리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취미 생활 그쪽으로 해서 이용률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환경 주제로 해서 그쪽 수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P8)

“남고에서는 기술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분류고요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환경공학이라든지 도시 설계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많이 하려고 하고,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보건 계열 물리치료라든지 방사선 그다음에 남자아이들도 요즘 간호사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공학 이쪽으로도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인문 교육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주

제입니다.” (P5)

“요즘 생태 환경이 중요해져 학교도서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수서를 하고 있는데, 590번대 책이 환경과 관련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슈들을 반영하는 590에 속하는 전자책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P6)

5.1.7 예술류

초등학교 사서교사에 따르면 예술류의 주제 영역에서는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그림 도안책을 찾는 경향이 있고 그 밖에 특별한 이용 행태를 찾아보기 힘들며 수요도 많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에서 담임 교사로부터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에 대한 자료이용이 수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와 음악과 관련된 전담 교사가 전자 악보와 같은 전자 자료를 학교도서관에서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은 무조건 따라 그리기 예쁘게 따라 그리기 뭐 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인기가 많고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딸림 자료가 많은 자료들이어서 이것들이 전자책이 되면은 좀 활용도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P4)

“비대면 수업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으로 이런 이런 미술 작품이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저희가 그림책 일부를 스캔 많이 뜨거든요. 그것도 수업시간에만 쓰시라고 하고 공유하고 하는

데 그게 전자책으로 있으면 레퍼런스할 때 좋을 것 같아요.” (P1)

“저는 음악 전담 선생님이 전자 악보 같은 것이 있는지 학교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보신 적이 있어요.” (P2)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다른 주제 영역보다 이용률이 훨씬 낮고 기본적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또한 초등학교 사서교사들과는 달리 수업 자료를 요청받은 경험은 없었으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위한 주제로 예술류의 책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부 사서교사의 경우 미술 분야와 관련하여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미술 작품집, 도화집과 같은 양질의 참고도서가 전자책으로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건 저희 학교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600번이 오히려 300, 400, 500번대 보다 이용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적고 해서 그렇게 굳이 구축에 중요도를 따지자면 전자책도 300, 400, 500번대에 비중이 높으면 600번 때는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P10)

“인문계 고등학교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소수 계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수요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예술류 분야의 전자책을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P5)

“저희는 이쪽 영역의 책들을 수업 자료로 요청받

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어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글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관련된 참고도서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600번대에 가서 책을 찾더라고요. 자기 취미와 관련된 거 좋아하는 거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글쓰기 숙제를 해야 될 때는 대부분 600번의 책을 찾았던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P7)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 통해서 접속을 해봤을 때 초등 자료 중에서 학습만화 부분이 여기 전자책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학습 만화를 굳이 전자책으로까지 해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 예술 분야 특히나 디자인, 미술, 사진 이쪽은 비주얼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삽화가 의미를 요하는 자료들이 많으니 이게 전자책으로 이제 구축이 된다면 가독성 차원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우리 인쇄 자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5)

“그래서 그런 만화 자료보다는 가치 있는 도화집이라든지 특히나 아이들이 작품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많다 보니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참고도서가 많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10)

5.1.8 언어류

언어류의 경우 학교도서관 소장도서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 목록의 분석 결과 모두 영어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초등학교 사서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직 제2외국어를 접

하기 어렵고 교과목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구성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영어 관련 어학 서적들은 수요가 높아서 많은 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신의 질 높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초등학생들은 학습에서 대상으로 하는 언어가 한국어하고 영어 이 두 개 거의 사용하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수요 자체가 없어요.” (P4)

“초등학생들이 아직 제2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영어 이외에는 오히려 한자 소학이나 마법 천자문 같은 한자책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그 밖에는 딱히 찾지를 않아요. 전자책으로까지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P1)

“자주는 아닌데 영어 원서를 조금 보려고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추천을 하려고 하면 다 오래된 단행본 위주이고 최신 책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영어 원서까지 수서에 넣을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만약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책으로 최신의 양질의 영어 원서를 교육자원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어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어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P3)

반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영어 원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영어 관련 단행본이 집중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프랑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제2외국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학교도서관 소장도서만으로는 참고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수학능력시험의 제2외국어 응시과목 위주로 다양한 언어의 전자책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학부모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배경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어나 필리핀어와 같은 언어류에 대한 전자책이 구축된다면 관련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중국어, 일본어는 중학생들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이탈리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있는 게 좋죠. 러시아어도 따로 공부하는 친구도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의 책들을 학교도서관이 사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책들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죠.” (P7)

“저희 학교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쪽에 애들이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과목 위주로 최소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들이 반드시 약간씩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언어 관련된 부분이 근데 아예 출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교과목 학습 위주로 교육청에서 전자책을 구축해서 제공해주면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학교의 부담도 줄 것 같아요.” (P10)

“저희 학교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께서 베트남 혹은 필리핀 분이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이들이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P6)

“저도 특히 베트남 필리핀 문화 계통의 언어들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책으로도 꼭 필요하지만 저는 학교 소장도서 수서에도 추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P10)

5.1.9 문학

초등 사서교사의 경우, 문학류에 대한 이용자의 행태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의견이 있었다. 첫째, 문학류 책은 인기 도서의 경우 장기대출을 하는 경향이 가장 많은 분야이고 다른 영역에 비하여 완독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전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수업에서 담임 교사가 교육자원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학생들의 자율 독서지도를 위해서는 이미 학교 소장도서로도 충분하고 전자책 구축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스테디셀러나 일부 인기 도서의 경우에 한하여 전자책이 구축된다면 도서 회전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 문학류 목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세기, 21세기에 출판된 한국소설보다는 희곡, 동시, 동화, 고전 소설 등이 전자책으로 구축된다면 수업에서 전자책판을 통해 교육자원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소설을 포함한 문학류는 도서 회전율이 낮아요. 대출일도 연장하거나 연체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마다 독서능력이 다르지만 초등학생들 기준으로는 보통 대출기간 안에 독서를 끝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대출이 있다든지 일부 인기책들은 복본의 개념으로 전자책으로 보충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소설보다는 오히려 동시를 전자책으로 간편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동시 작품들을 전자책으로 수업에서 전자책판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P1)

“저는 희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장도서로도 희곡책을 좀 사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희곡장르가 너무 없어요. 작가가 꿈인 아이들도 찾고 저희 학교 경우에는 연극 수업이 있어서 연극 선생님이 항상 오시거든요. 이런 장르가 전자책 방식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P10)

“분석해주신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 목록을 보니 20세기, 21세기 한국소설이 문학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데 이쪽 한국소설은 이미 소장자료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내용상 완독하는데 상당 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일을 꼭 채우거나 연장하고 싶어하거나 그래요. 전자책과 맞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자책으로는 문학류의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차라리 전자책으로는 교육자원으로 소장도서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동화나 고전 소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P3)

반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은 소장도서로

는 해결하기 힘들거나 당장 시급하게 봐야 하는 교육자원과 같이 특정한 수요에 의해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문학류의 경우 이미 학교도서관 소장도서로도 충분하게 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문학류를 전자책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낮다고 하였다. 오히려 문학류 도서는 학생들이 종이책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서교사는 과제 해결만을 위해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전자책 이용을 자칫 일회성으로 그치게 할 우려가 있고 아이들을 평생 독자로 나아가도록 지도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전자책을 통한 문학류의 독서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학류의 전자책 장서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자책은 당장 급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나 필요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기가 원하고 재미있는 에세이든지 이제 소설이든지 하는 부분들은 책에서 이제 직접 책의 실물로 봐도 충분할 정도로 사실 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된 책을 찾는 경우도 많아서 전자책으로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 소설은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문학류 소설은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보니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P10)

“전자책에 관한 경우 특히나 문학류까지 제공은 많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P10)

“1인 1기기 시대에 아이들이 도서관을 너무 이용하지 않는데, 전자책이라도 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종이책을 접한 아이들이 책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전자책이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유인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유인책 차원에서 일단 아이들이 그나마 많이 읽는 문학류의 책들이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학교도서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P7)

“사실 전자책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점점 책이랑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진짜 아이들은 소설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에세이 800번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제형으로만 그냥 해결하고 전자책을 이용하면 사실은 그냥 그때만 사용하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평생 독자로 나가려면 전자책을 800번대를 진짜 다양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도 넣어주고 소설도 넣어주고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해서 종이책과 전자책은 독서방법도 분명히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사서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이요.” (P8)

5.1.10 역사와 지리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사나 전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최근 한국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한국사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한국의 역사 단원을 학습하고 있어서 해당 학년

에서 한국사에 대한 학습 만화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다고 하였다. 반면 중등 사서교사는 역사보다는 지리분야에 있어서 세계 지도나 지리에 대한 책들이 학습자원으로서 전자책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초등에서 본다면 아이들은 한국 역사나 위인 전기를 많이 읽어요, 이 부분이 전자책으로 제공되면 학습자원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P1)

“초등학생들은 한국 역사에 완전 열광을 하고 있고요, 특히 6학년 1학기 사회단원이 통제로 한국사 부분인데 아이들은 교과서로 처음 이 부분을 배워요, 그래서 갑자기 관련 학년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 책들의 이용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P2)

“학부모님들이 인기 저자의 한국사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거든요, 원래 학습 만화책류는 보통 대출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한해서는 대출을 허용해 주고 있어요.” (P4)

“지리에 관련된 것 중 남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양극 지방은 그렇게 많이 찾는 사람 없더라도 학습자원으로 전자책을 구비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사서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요보다는 수업에 활용을 위한 교사들을 위해 준비해 줘야 하는 영역이에요.” (P10)

“전자책을 수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영역이지요, 특히 지리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들은 실물장서보다는 전자책 제공이 학습자원으로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P10)

5.2 소장도서와 전자책 장서 구성의 관계

사서교사들은 소장도서와 전자책 장서 구성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은 소장도서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초등 사서교사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서는 학교도서관에 이미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해 실물장서를 구비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들을 조사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전자도서로 구비하고 단위학교들이 해당 학생에게 전자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은 소장 도서의 대체재보다는 보완재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도서관에도 솔직히 많이 소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는 분포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 이런 조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언어 얘기할 때처럼 솔직히 불어라든가 다른 언어들 소수의 언어들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솔직히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책을 구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그런 류의 책들이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한 기본적인 종수를 이제 전자도서로 받쳐준다면 그런 소수의 아이들이 전자도서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3)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환

경에서 종이책을 이용을 못 할 경우, 예를 들면 과제를 집에서 수행할 때라든지 수업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다 구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책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책이 지금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이 전자책을 과제 해결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P5)

5.3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 여부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에 대하여 사서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교사들에게 수업자료를 보완해주는 목적으로 전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제해결을 위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수업 시간에서 활용하게 저는 가장 좋은 전자책 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 책에서 이 부분을 몇 페이지에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책갈피를 해서, 전자책을 패드로 이용해서 보는 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P8)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서도 과제 탐구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논문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들을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도서관도 물론 와야겠지만 전자책이 있다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7)

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책이나 사전과 같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접근해야 하는 책은 더 많은 전자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전 문학이나 과학 서적과 같이 교사들이 전자계시판에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하여 한 반이 다 읽을 수 있는 양의 복본을 구비해야 하는 실정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와 연계된 도서들을 전자책으로 구입하고 전자패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서교사들은 특히 복본 문제 해결과 교과 수업에서 전자책판으로 전자책을 활용할 때 구독형으로 전자책을 제공한다면 한번에 다수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교육자원으로 자유롭게 쓰기에는 현재 부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소장도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빈약하고 오래된 책 위주인 점,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요와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역 초등 사서교사 카톡에도 자주 올라오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열 몇 권 부족한데 빌려주실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저희가 정말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그 시간에 다 같이 그 작품을 보고 함께

이제 한 학기 한 권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전자도서로 개발해서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P2)

“지금 우리 지역 교육청에 구축된 DB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읽고 싶은 또는 필요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아니면 그냥 교양으로라도 아니면 그냥 소설이라도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P5)

“복본 문제, 교과에서 활용할 때 전자책으로 만약에 구독형으로 했을 때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히 수업에서 아무래도 요청하고 저도 그런 복본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P8)

부산 교육청이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부산시 민도서관 전자도서관이나 교육청의 북드림의 구독형 전자도서는 구독형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성인도서들과 혼재되어 있고 접근점도 일반 이용자와 같은 접근점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지금 부산지역만해도 전자책 이용하려면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시 민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교육부가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수업에 필요한 그림책은 전자책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기

는 해요. 제가 이용해 본 후 드는 아쉬움은 여차피 사서교사들도 초중고 담당이 나뉘져 있으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약간 분야를 나눠서 분야별로 관리하면 좋겠어요. 적합한 자료를 바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P1)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드림에서 계정당 월 5권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형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책을 대여하는 형태로 이용하기는 좋은데 초등학생들에게 바로 들어가 보라고 하기에는 검색창이나 인터페이스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독서수준이 하나도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뭐 그냥 말 그대로 제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P2)

5.4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책 서비스의 전반적 문제점

참여한 대부분의 초등학교 사서교사들은 현재 전자도서관에 접근하는 전제 조건인 DLS 시스템 자체의 접근 방법이 복잡하고 입학과 졸업으로 생기는 학생들의 이동에 학교급간 자동 승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쓸 때, 독서 인증을 DLS로 하기 때문에 사서교사들에게 독서지도를 DLS 아이디를 통해 이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초등학생은 그러한 유인책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DLS를 활용한 독서지도에 애로사항도 있었다. 특히 DLS 아이디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해당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였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데,

초등에서는 가입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DLS 고도화 작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로그인하는 가입절차 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 시 지금처럼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승계 과정을 하도록 개편하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하더라도 하나의 ID를 통해 지속적인 독서지도가 가능하도록 DLS 운영이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실물장서의 대출 기록처럼 전자책은 대출이력을 사서교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서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이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내부에서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아이디랑 DLS랑 이게 나뉘는 게 저는 제일 멍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뉘면서 굉장히 가입하기를 어려워해요. 가입부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은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을 통한 독서지도는 힘들다고 봐야죠.” (P4)

“이원화되어서 관리되는 게 또 문제인가 상위학교 진급 시에 승계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이게 나중에 DLS 상으로는 저희가 왜 진급할 때 졸업자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들어가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아이들도 자기 아이디를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P4)

“초중고 DLS가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아까 DLS를 기반으로 해서 진급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설정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이 안 돼요. DLS는 일괄 가입을 시키니까 그냥 중학교에서 이제 관리가 되지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이디를 설정하고 DL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DLS가 급간이 바뀌면서 연동이 안 돼요. 아이디를 알지 못하면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또 교육청 센터에 사서교사인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줘야만 알 수 있어요.” (P2)

5.5 전자책의 서비스 책임 기관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서도 전자책에 대한 수요를 외면하기 힘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학교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전자책과 관련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간에 단계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더욱이 단위 학교도서관에서는 일반 장서 구입비도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개별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과 관련한 큰 밑그림을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교육청에서 구축해서 단위학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베스트셀러나 인기도서 혹은 대출 통계만을 토대로 전자책 DB를 구성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들을 엄선해서 목록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책 수서의 과정에서 사서교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 간 별 교육과정에 위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보 추구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연구 자료라든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자료가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책 DB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런 책들을 조금 엄선해서 그런 하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P5)

그 밖에 코로나19 이후 단위 개별 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예산 문제로 최신의 전자책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특성상 업무 담당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바뀔 경우에 지속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예산이 있는 학교라면 단독으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지속성에도 의구심이 들고요, 최소 교육청 차원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데에 맞춰서 전자책을 구독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P5)

“예전에 전근으로 이동한 학교 중에서 학교 자체에서 교보문고랑 체결을 맺어서 전자책을 했는데

관리자가 몇 번 바뀌고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누가 딱 담당해서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등 아무도 전자책 구독이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제일 오래 근무하고 계신 교무 실무 선생님만 그 아이디어를 알고 혼자서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사서교사가 안정적으로 모두 근무하는 환경이 아니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놓고도 업무 담당자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몇 년간 구축된 전자책을 전교생이 천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 실무 선생님 한 분만 이용하셨던거죠, 참 안타까운 사례였죠.” (P5)

5.6 장르문학의 전자책 수용 여부

장르문학이란 SF·무협·판타지·추리·호러·로맨스를 읽는 독자층과 적극적인 옹호자들이 증가하면서 ‘대중소설’이라는 용어에 갖든 멸시감을 피하기 위해 문학과 출판계, 저널리즘, 옹호자들이 암묵적으로 타협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장르문학은 ‘장르문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많은 수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그 독자층 중 상당수는 도서선정과 독서에 미숙한 상태의 중·고등학생으로 독서지도사의 독서지도가 필요한 대상이다(권택선, 2012, 1).

5명의 중등 사서교사는 교육청에서 장르문학을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유와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나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장르소설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서교사의 경우 장르문학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이들은 장르문학 중에서도 SF, 고전 환상문학 등 작품성이 있는 장르문학 작품들에 한하여는 실물 장서로 구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 차원에서 전자책으로 장르문학을 제공하는 것에는 학내 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뭐라도 읽혀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반면, 요즘 아이들은 글을 바탕으로 너무 기상천외한 상상을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구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P6)

“장르문학 예를 들어 판타지, 무협, 가벼운 로맨스 등을 사서 서비스하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즐길 수는 있으나 학교도서관에서 서비스한다면 좀 불안합니다.” (P10)

“웹 소설, 라이트노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자 자료로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SF, 환상 문학, 고전 환상 문학의 정도로 작품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구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5)

“저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신청하는 그런 장르문학은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동의하게 됐어요. 다만 아이들의 전자책 독서가 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장르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독서지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P8)

5.7 학교급간별 사서교사의 인식 차이

초등, 중등 사서교사 모두 자원이 풍부한 전자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학교도서관을 보완하는 용도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 중등 사서들은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제를 하고, 교과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의 진로 및 과제와 관련된 300, 400, 500번 위주로 전자책을 구축하였고, 오히려 실물로 많이 소장된 800번의 경우 초등, 중등 사서교사 모두 전자책보다 종이책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좋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초등과 중등은 학습의 위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강목별로 다른 양상을 띠었다. 예를 들어 총류의 경우 초등은 백과사전, 향토자료의 수요가 높았으며, 중등은 진로와 관련된 문헌정보학 영역 및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슈들의 수요가 높았다. 철학류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논리력 향상과 관련하여 논리학과 관련된 서적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중등은 오히려 진로와 관련된 상담 심리 분야의 수요가 높았다. 종교류 경우에는 초등, 중등 모두 그리스도마신화의 수요가 높았으며, 아이들의 지속적인 탐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교 자원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 밖의 주제에서는 초등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속담, 수수께끼, 도감, 요리책과 같은 개별 아동의 흥미와 성향을

바탕으로 아동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전자책 수요가 있는 반면 중등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진학과 진로와 관련된 정치, 행정, 경제학, 통계학, 도시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책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결론 및 제언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과와 연계된 부분이나 학교도서관 장서를 보완하는 용도로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문학류와 같은 읽기 활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은 종이책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책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여 더 많은 전자책이 구비된다면 아이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이 많은 양의 복본 도서가 필요할 때, 전자책이 있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책의 경

우에는 단순히 베스트셀러를 목록에 담고 자원이 풍부한 전자책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위한 자료를 찾고 교사들의 교육 자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자책 목록을 구성할 때 아이들의 성장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들을 엄선해서 넣는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부산지역 사서교사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표본 크기가 작아 표본의 대표성,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효과 추정치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Larson-Hall, 2016),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수요조사나 대출 통계 수치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학교도서관 현장의 사서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학교급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육자원으로서 전자책 활용에 대해 사서교사들이 경험하는 이슈와 인식을 바탕으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희영 (2021).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전자책 인식 및 활용 개선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 09. 24). 북드림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출처: <https://if-blog.tistory.com/11153>

권택선 (2012). 장르문학의 독서지도 필요성과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 독서지도전공.

김희동 (2011).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험 활동이 유아들의 이야기 이해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아동복지전공.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발행년불명].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용안내.

출처: <https://reading.pen.go.kr/r/newReading/intro/systemIntro.jsp>

북드림 [발행년불명]. 북드림 전자도서관 안내.

출처: <http://bookdreamlotte.dkyobobook.co.kr/helpDesk/libraryGuide.ink>

송이 (2012). 대학도서관 전자책 장서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신정아 (202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아카이브지, 4(2), 97-112. <http://doi.org/10.23089/jdca.2021.4.2.007>

윤택남 (2022). 온라인 확장형 읽기 활동에 관한 미국 초등교사들의 인식조사. 인문사회 21, 13(3), 295-306. <http://doi.org/10.22143/HSS21.13.3.22>

최미나 (2012). 전자책과 학습의 융합으로서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이슈 및 과제. 2012년 한국전자출판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1-38.

Biancarosa, G. & Griffiths, G. G. (2012). Technology tools to support reading in the digital age. *The Future of Children*, 22(2), 139-160. <https://doi.org/10.1353/foc.2012.0014>

Dawkins, A. M. & Gavigan, K. W. (2019). E-Book collections in high school libraries: factors influencing circulation and usage. *School Library Research*, 22, 1-21.

Larson-Hall, J. (2016). *A Guide to Doing Statistic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Using SPSS and R* (2nd ed). Routledge.

Lim, J. G., Whitehead, G. E. K., & Choi, Y. D. (2021). Interactive e-book reading vs. paper-based reading: comparing the effects of different mediums on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System*, 97, 1-14. <https://doi.org/10.1016/j.system.2020.102434>

Smeets, D. J. & BUS, A. G. (2013). The interactive animated e-book as a word learning device for kindergartners. *Applied Psycholinguistics*, 36(4), 890-920. <https://doi.org/10.1017/s014271641300055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okDream [n.d.]. Bookdream electronic library guide. Available:

- <http://bookdreamlotte.dkyobobook.co.kr/helpDesk/libraryGuide.ink>
- Choi, MinA (2012). Issues and tasks of development on digital textbook as a fusion product of e-textbook and learning. Korea Digital Publishing Society, 2012(2), 31-38.
-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Reading Education [n.d.]. Guidelines for the use of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reading education. Available:
<https://reading.pen.go.kr/r/newReading/intro/systemIntro.jsp>
- Gwon, Taek-Son (2012). The Necessity of Reading Guidance and Guidance in Genre Literatur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Kang, Hee-Young (2021). School Library Staff's Perceptions of E-Book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la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Hi-Dong (2011). An Effect of Electronic/paper Book Experiences on Children's Story Understanding and Creativity. Master's thesis, Kyunpook National University.
- Shin, JengA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library e-book lending services: focused on Gyeonggi-do cyber library.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4(2), 97-112.
<http://doi.org/10.23089/jdca.2021.4.2.007>
- Song, Yi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book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for Academic Librar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outh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rots and Tourism (2021). A National Reading Survey. The official blog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0, 09, 24). Let's read at the Bookdream electronic library!. Available: <https://if-blog.tistory.com/11153>
- Yoon, Tec-Nam (2022). Perception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the US on online extensive read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3), 295-306.
<http://doi.org/10.22143/HSS21.13.3.22>